돈 뜯기고 망신살…성에 눈 먼 남성들

채팅앱 유혹 금품 갈취한 '10대 꽃뱀' 일당 무더기 적발

술 마신 뒤 음주운전 유도해 고의사고…11명에 돈 챙겨

광주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시도하는 남성을 유혹해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10대 꽃뱀'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소년과의 그릇된 성관계에 눈이 먼 남성들은 가정과 경찰에 알리겠다는 10대들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돈을 뜯기는가 하면 경찰조사까지 받아야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30~40대 남성을 대상으로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목격했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공갈)로 폭력조직 소속 김모(19)군과 박모(18)양 등 4명을 구속하고, 28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대는 남자 10명, 여자 9명 등 19명이다.

박양 등은 지난 2016년 1월 17일 오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유부남인 박모(38)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공범 김군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은 특히 남성들이 일방통행길로 역주행을 유도했으며,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현장에서 받아낸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 6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지난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남성 11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 합의금 및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신양OB파) 소속인 김군은 지난해 10월 가출을 한 박양과 유모(17)양 등 여성청소년 6명에게 생활비를 벌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유인조, 사고 유발조, 목격조 등 체계적으로 팀을 나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양, 유양 등은 채팅앱으로 "같이 술 마실 사람?"이라고 글을 올려 성인 남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인근 모텔로 옮겨 술을 더 마시자. 가까운 곳이니 대리(기사)를 부르지 말고 그냥 가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양은 이 과정에서 인근에 렌터카를 타고 대기하고 있던 공범 김군에게 휴대폰 메시지로 해당 남성의 차종·번호, 출발시간 등을 보내는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김군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공범들이 우연히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접근해 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고 남성들은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겠다"는 말에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을 인출해 김군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남성들은 대개 30~40대 사업가나 회사원들로, 음주운전과 미성년자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현금으로 무마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4명을 추적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동부경찰도 이날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를 시도한 남성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연인 관계인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황모(18)양과 남자친구 박모(20)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김모(27)씨를 만난 뒤 "미성년자 성매매를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만원을 계좌로 받는 등 지난 2일까지 3회에 걸쳐 72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미혼으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회사원 김씨는 황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거절했지만, "성매매를 시도한 자체를 알리겠다"는 박씨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돈을 뜯겼다. 김씨는 3회에 걸쳐 720만원을 보냈으나, 또다시 250만원을 요구하는 황양 등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었다.

한편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10대 청소년은 지난 2015년 5명에 불과했으나, 2016년 23명, 2017년 8월 현재 20명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금은방서 "목걸이 좀 봅시다" 800만원 짜리 차고 줄행랑

광주북부경찰, 용의자 추적

광주북부경찰은 4일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매한다며 8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40돈)를 건네받아 도주한 김모(40)씨를 추적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유모(여·54)씨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유씨에게 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한 후 도주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월 5일과 6월 23일 유씨의 금은방을 방문해 금목걸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친밀도를 높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씨는 매입장부에 김씨의 신분증 사본과 인적사항 등을 기록했다. 경찰은 금은방 내 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통신수사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칫솔질은 이렇게 4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구강교육실에서 열린 '새싹들의 튼튼 건강교실'에 참가한 광주 어린이집 원생들이 보건대학교 치위생과 학생들로부터 치아 관리법과 칫솔질 교육을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한국GM 근로자도 통상임금 승소

법원 "업적연봉도 포함"

기아자동차에 이어 한국지엠(GM) 근로자들도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법원은 업적연봉,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시 산정한 밀린 3년 치 임금 총 90억여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GM은 근로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한국GM 사무직 근로자와 퇴직자 총 1천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총 3건으로 구성됐으나 판결 취지는 같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사무직 근로자 1024명과 퇴직자 74명이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이 2015년 12월 "업적연봉과 가족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돌려보냈다. 이들은 2004~2007년분 임금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 백남기 농민 유족 만난다

7일 면담 의견 청취…수사 새 전기 맞을지 주목

검찰이 경찰의 시위 진압용 살수차(일명 물대포)가 쏜 물줄기에 맞은 후 숨진 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만나기로 했다. 1년 10개월째를 향해 가는 수사에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4일 유족과 유족 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30분 백씨 딸 백도라지(35)씨와 민변 변호사들이 검찰 면담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찾는다.

검찰 측은 면담에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사건을 맡은 이진동 형사3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과 변호사 측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등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빠른 처리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살수차가 쏜 물줄기에 맞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이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작년 9월 25일 숨졌다.

유족은 백씨가 쓰러진 직후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을 살인미수(예비적 혐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 업무 비리 혐의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업무 관련 비리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으로 수사관들을 보내 A경위의 책상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은 A경위와 관련해 한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혐의유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 수사중인 만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저소득층 지원카드 주워 무심코 쓴 여중생 선처

광산경찰, 전과 없는 즉심에

광주광산경찰은 4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식대를 지원해주는 '꿈자람카드'를 주워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중학교 2학년 A(14)양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7월 6일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길가에서 B(16·고등학교 2학년)군의 꿈자람카드를 주운 뒤 친구들과 함께 제과점과 분식집 등에서 10회에 걸쳐 8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양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지급되는 꿈자람카드의 지원 대상자였으며, 지난 5월께 자신의 꿈자람카드를 분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에서 "지금까지 3차례 이상 꿈자람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예전에 분실한 카드를 주운 사람이 (자신의)카드를 사용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의 카드를 주워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 알고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꿈자람카드는 신분확인 없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김양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사건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A양에 대해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결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꿈자람카드사업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월 평균 12만원 씩을 지원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만취 상태 이웃집 찾아가 알몸 행패 부린 '동네 주폭'

쌍나팔

○…만취상태에서 이웃집에 알몸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 '동네 주(酒)폭'이 철창행.

○…4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박모(64)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께 여수시의 한 섬마을에서 김모(68)씨 집에 알몸으로 들어가 김씨의 아내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고 이를 말리던 김씨를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했다는 것.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201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마을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바람에 섬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경찰에서 박씨는 "뒷집에 사는 김씨가 집 사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을 놓고 잔소리를 해 홧김에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

/여수=김창화기자 chkim@

호텔 매매 임대 교환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 지리산 온천지구내, 대형모텔
■ 대지 573평 건물 685평, 지상 4층, 객실58개
■ 전체 리모델링 (6억 투자)
■ 연수원 등 기타시설 가능
■ 케이블카 운영시 대박 !
■ 시세/감정가 – 20억, 매매 – 18억 (융자 8억포함)
■ 임대/교환 협의 H. 010-3605-5000

산수유/벚꽃/매화축제, 여름휴가 등산객 등 성수기철(5개월) 영업으로 순수익 4억 가능 !